

회원사소식

남성기전(주)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



▲ 지난 9월 9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남성기전(주) 임직원의 기념촬영(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최전남 대표)

자 동제어 전문업체인 남성기전(주)(대표 최전남)이 지난 9월 9일 마포가든호텔 백합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“「품위있는 회사, 국내 최고의 명품회사」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최고의 자동제어업체를 만들어 갈 것”을 다짐했다.

남성기전은 또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자체 개발한 NECO-2000의 보급 확대와 함께 물관리, 클린룸, 플랜트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것을 선포하고 향후 30년을 겨냥한 비전을 제시했다.

지난 '78년 창립한 남성기전은 불모지나 다름없었

던 자동제어업체가 최첨단 건축물인 인텔리전트빌딩의 핵심기술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성장 속에서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시공기술 축적으로 자동제어업체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.

그 결과 남성기전은 ‘지열을 이용한 노면 결빙 방지장치’로 특허 획득과 함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
장인정신에 입각한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최전남 대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, 자동제어업체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. 